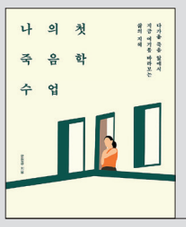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5~12/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알기쉬운 우리말 화엄경독송	무비 스님	우리출판사	7	우다나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근본불교	이 중표	불광	8	붓다의 옛길	삐야닷시테라	달물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유가사지론 강의	남회근	부키
5	밀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도기밀종과 동방신비학	남회근	마하연	10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 종호	운주사

책세상

“삶은 죽음 예정돼 있어 비로소 더욱 빛난다”



나의 첫 죽음학 수업

문현공 지음

책과이음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죽음은 그저 뉴스 기사에만 오르내리는 남의 소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각자에게 모두 하나씩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마치 동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은 두렵고 무서운 형상을 띠고 있지만 뒷면은 생명의 존속과 마음의 전환이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매여 있다면 저 광대한 우주로 떠난 하나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인연은 오고 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작은 소리로 위안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대학서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문현공 박사가 일상서 길어 올린 단상을 담백한 말투로 강의하듯 써 내려간 죽음학 입문서이다. 죽음의 정의를 살펴보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토론하며, 죽음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뉴스, 영화, 드라마, 게임, 소설, SNS 등 우리에게 친근한 일상의 소재에서 시작해 조금은 진지한 철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어둡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 기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든 생명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 있는 순간순간이 언젠가 다가올 죽음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미지의 불안과 공포를 바로 보는 법, 남겨진 자의 허무와 슬픔을 치유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넘어선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한마디로 죽음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실 또한 죽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이혼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사하거나, 졸업하는 등 삶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거듭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나 괴로움을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죽음이 그렇듯, 변화나 괴로움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작가는 또한 평소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은 그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미리 가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지만
죽음 받아들이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듬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수용의 마음가짐이다. 수용, 즉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이 온전히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내면에 소화한다는 의미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미지의 두려움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기를 중단하고 안정감과 침착함을 되찾는다. 이른바 ‘다시 태어남’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

죽음은 삶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성장의 기회와 같다. 만약 죽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면 죽음이라는 손님이 노크할 때 활짝 웃으면 반기지는 못하더라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주어야 할 약간의 이유는 될 것이다. 뒤늦기 전에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죽음이란 이름의 스승으로부터 말이다.

▲저자 **문현공 박사**는?

현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대학서 죽음학, 명상, 종교심리학을 연구하며 청년들에게 죽음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공군 군종장교로 군 복무를 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서 석사학위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객원연구원,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동국대 외래강사, 가천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학적 적용〉 〈죽음 현저성의 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품성과 품격 쌓는 것,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



스님, 고민이 있어요

등명 스님 지음

마음의 숲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년고찰 선암사는 사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꼽힌다. 오랫동안 수많은 문인, 화가, 사진가, 서예가 등의 작품에 오르내릴 만큼 한국적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아름답고 오래된 선암사의 모습을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한 등명 스님(현 템플스테이 교장)이 처음으로 글로 풀어내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 고민이 있어요〉라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은 선암사를 찾은 많은 사람과의 차담(茶啖)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주고받은 삶의 진정성을 친밀한 스님의 어투로 담아 독자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풀어준다. 특히 선암사 자연 풍경과 구석구석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읽는 이들에게 선암사의 사계를 펼쳐 보여준다.

등명 스님은 불필요한 마음이 차오를 때면 현재의 내가 곧게 서 있는가를 우선으로 살피라고 말한다. 분별심을 갖지 않고 부차적인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며 나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수행)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속 고민이 해결된다고 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쉼과 성찰 속에서 자신의 방향이 정해지며 결국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등명 스님이 차담과 템플스테이의 경험을 통해 풀어나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암사에서 천년을 넘게 이어 내려오며 사는 꽃과 나무와 새 그리고 바람과 구름의 자연 속으로 읽는 이들을 초대한다. 봄이면 피어나는 300년에서 600년이 넘은 50여 그루의 홍매화와 절 전체 꽃 잔치를 방불케 하는 겹벚꽃, 여름의 배롱나무, 작약, 상사화, 가을의 은목서 향기, 사시사철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들어선 편백나무 숲, 야생차밭 그리고 선조와 추사 김정희 서체 등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선암사가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선암사 입구에 들어서면 그 어떤 고민마저도 저절로 툭! 떨어지는 것 같다. ‘공간적 · 시간적으로 속세와 성역을 가르는 분할 공간이자 완충 지역이다’라고 유홍준이 말한 숲길을 지나, 선암천 계곡에 있는 보물 400호 아치형 무지개다리 승선교(昇仙橋)를 건너 선녀가 내려왔다는 누각 강선루를 지나면 비로소 선의 세계에 이른다는 선암사. 그곳에서는 그 어떤 욕망도 욕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찰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선암사 도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려한 이유와 사연들을 등명 스님은 말한다.

긴 세월 선암사와 동고동락하며 깨우친 등명 스님의 자연을 통한 삶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자연에서 오감으로 직접 깨달은 지혜와 진리는 오랫동안 골머리 앓아온 숙제를 명쾌하게 풀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사한다. 주어진 삶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것, 욕심을 덜고 내 자신을 바로 보아 남은 삶에 용기를 더하는 것. 선암사를 거쳐 간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그간 잊고 있던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익히게 될 것이다.

선암사 템플스테이 교장 등명스님 마음 이야기
템플스테이 통해 주고받은 삶의 진정성 풀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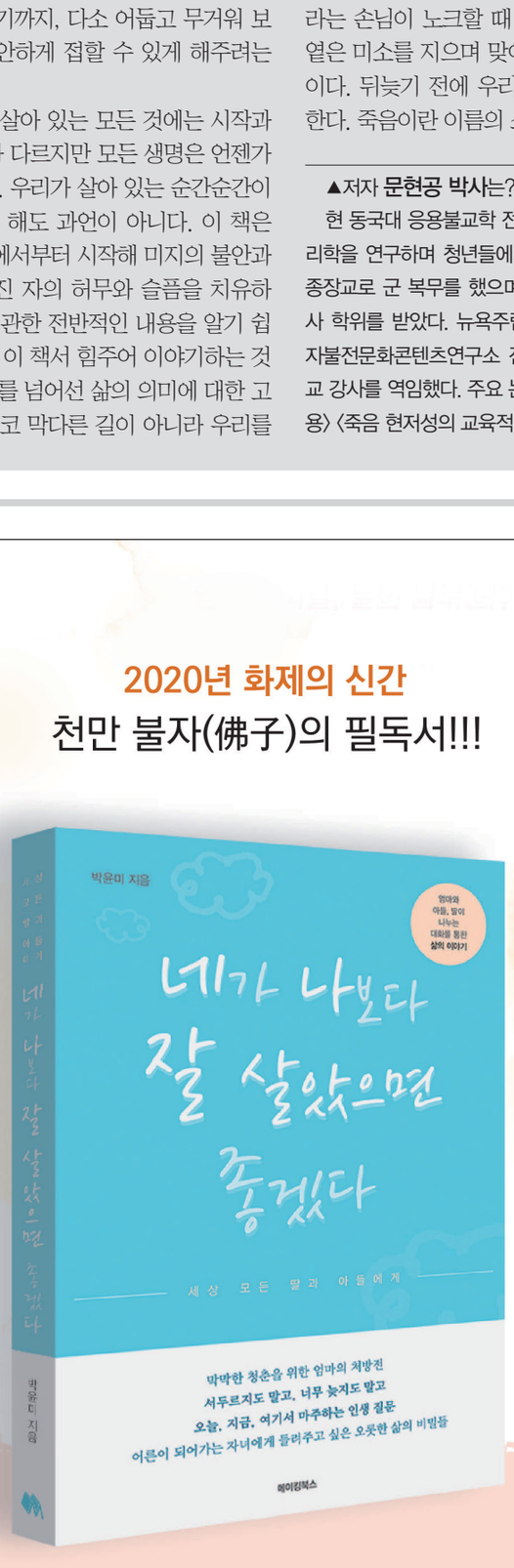
등명 스님은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모든 번뇌는 물질에 대한 삼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설하는 비움은 여타 교훈적인 비움과는 조금 다르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 내 안의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선암사에 머무르며 등명 스님이 깨친 분별없는 혜안의 문장은 독자에게 삶의 짐을 덜어놓도록 만드는 정겹고 따뜻한 위안으로 다가온다.

책에는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스님이 차담을 나누며 주고받은 사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등명 스님은 자연에서 깨달은 지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사한다고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등명 스님**은?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종 총림(叢林)으로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 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갖춘 사찰이며 제자가 스승에게서 정법을 받아 뒤를 잇고 또 제자에게 전하며 계계승승(繼繼承) 해온 전통적인 사자상승(師資相承) 절이다. 등명 스님 역시 스승에게 교법을 이어받고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하며 공부했다. 현재는 선암사 템플스테이 담임스님으로 있다.

2020년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의 필독서!!!



세상 모든 딸과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